



경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이철우(가운데) 도지사에게 성금 전달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경북도

## “도민 여러분 힘 내세요” 경북에 성금·물품 기탁 잇따라

이철우 지사 “모든 역량 모아  
바이러스 반드시 극복할 것”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는 경북도민을 응원하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일 도청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60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도내 10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지역사회가 일상을 찾도록 경제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가ACM 건축사사무소가 성금 5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기탁했다. 이종석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인수피엠리서치 및 페리글라이딩랜드 대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성금 50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경북도문화원연합회도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 정연화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과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장유석 경북도의사회장은 경북도청을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하고 레벨D(개인보호복) 3천벌을 기증했다.

지난 달 28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와 한화솔루션이 마스크 7만 5천장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전해왔다.

이 밖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1억 원을,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가 5000만 원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가 4000만 원을,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가 20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금과 물품을 기탁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북도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사태가 조속히 전정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모아 도민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여가부 주관 사업공모 선정

장흥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리모델링, 인테리어, 집기구입비 1억원을 지원한다.

장흥군은 지난 2019년 3월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개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공간(스터디룸, 꿈드림, 햇살뜨락)을 조성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스터디룸은 학습공간으로 검정고시 공부방, 꿈드림은 직업 진로체험 등 다목적실, 햇살뜨락은 독서놀이 등 자유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남=김일환 기자 1234kiml@

**오늘의 날씨**

3월 4일 (수)  
음력 : 2월 10일

수도권 날씨  
1 ~ 4℃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4, 동두천 0/5, 가평 -1/5, 양평 1/6, 용인 2/4, 평택 2/6, 수원 2/4, 인천 2/4, 서울 1/4, 파주 -1/5, 백령도 1/2

해돋이 / 06:59 | 해질 / 18:2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광주시, 135억 투입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취약계층 일자리 800개 창출”

관 중심서 민간중심 생태계 조성  
성장 잠재력 큰 기업 지속적 발굴  
우수기업 사업비·컨설팅 등 지원

광주광역시가 올해 135억원을 투입해 선순환 사회적경제 일자리 800여 개를 창출한다고 3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일자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총 고용인원 가운데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이 65%를 차지해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은 시민들의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그동안 광주시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민간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사회적경제 혁신방안 마련, 사회적경제박람회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 관 중심에서 탈피,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한 민간중심 생태계 조성, 공공과 민간분야 판로확대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한 시민 인식제고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해 4월 발족한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 현장중심의 정책을 발굴,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기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마크 등 국가인증마크 취득을 지원한다. 우수 기업에게는 사업비, 경영컨설팅 등을 밀착 지원해 사회적경제 모범사례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프라인 중심이던 유통채널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판로를 확대한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또 지난해 10월 광주시와 SK스토어(주)가 체결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2개 이상 기업이 TV 홈쇼핑, 온라인 몰에 입점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공모

사업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유치하기 위해 3월부터 혁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등 사전 절차에 따라

이 밖에도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등 3만여 명이 참여해 사회적경제기업 350개 부스를 운영하는 만큼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과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이 강화되면서 기존 일자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공동체복원, 양극화 해소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가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고 한 단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월세 안 받는다”... 안동서도 ‘착한임대인’ 운동

중앙신시장 일부 건물주, 월세 감면 시, 공설시장 상가임대료 감면 계획

안동 중앙신시장 일부 상가 건물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앙신시장의 한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 3명에게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한 감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청

년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중앙신시장 청년몰에서도 두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해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을 주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 점포 2개가 입점해 있으며 임대료 인하가 아닌 월세 감면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옥동의 한 음식점도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는 등 안동시내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안동시도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공설시장인 용상시장(83개

점포)의 상가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3개월간 임대료 감면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광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상인들이 잘돼야 건물주들도 잘된다는 상생의 의미로 많은 분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주시길” 당부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 12월 준공

군외면 불목리 일원 20억 투입

전남 완도에 ‘스마트 치유마을’이 조성된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군단위 최초로 ‘2019년 지능형 ICT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받은 국비 10억원 등 20억원을 들여 군외면 불목리 일원에 스마트 치유마을을 만든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케어 기반 구축, 스마트센터와 힐링하우스 3동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건축분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 건축물과 스마트케어 기반구축 공사에 들어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유마을에는 스마트 센터 1동과 힐링하우스 3동이 들어서게 된다.



완도 스마트 치유 마을 조감도

스마트 센터는 불목리, 영풍리, 황진리 등 자연 부락 12개 마을 주민의 중심 시설로 복지, 생활편의, 지역 사업을 목표로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힐링하우스는 ICT기술과 완도군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광주 문화기관 휴관연장 고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3월 중순 개관을 고려했던 광주 문화기관들이 고심에 빠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11월 개관 이후 처음으로 오는 8일까지 휴관을 결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20광주비엔날레와 5·18민주화운동 40주기와 맞춰 관련 전시를 준비하고 설명회 등을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연기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 등도 코로나19가 잠식될 때까지 휴관을 결정했지만 전시의 시작인 3월을 포기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